

투톱 리더십 빛났다… IB-WM 시너지 폭발 ‘최대실적’ 달성

CEO 리서치

김 성 현·이 홍 구 KB증권 대표

KB증권이 김성현 대표(IB부문)와 이홍구 대표(WM부문) 체제로 개편한 뒤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순항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795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KB금융그룹 내 순이익 기여도도 3년 만에 10%를 넘긴 13.5%까지 올랐다. 두 대표가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IB 짝 잡았다… DCM·ECM 등 정상 방어 위해 정진

김성현 대표이사는 KB투자증권의 전신인 한누리투자증권 시절부터 기업금융부문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IB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취임했던 2019년 4700억원대였던 IB부문 수익은 2022년 1조원대까지 성장했다. 올해도 KB증권의 IB부문 1분기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291억원을 기록했다.

김성현 대표, 기업금융 부문 성장 2019년 4700억서 2022년 1조대 DCM서 작년까지 13년 연속 1위

HD현대마린, IPO 성공적인 수행 SK쉐더스 인수금융 등 최정상 역량

KB증권은채권발행시장(DCM)부문에서 블룸버그 기준 2023년까지 13년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절대 강자다. 올해도 신규고객 지속 발굴 및 RM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커버리지 본부를 개편하는 등 DCM부문 1위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주식발행시장(ECM)부문에서도 2024년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HD

김 성 현 KB증권대표이사(IB부문)

1963년 8월 5일 출생
1982년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입학
1988년 대신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2003년 한누리투자증권 기업금융팀 이사
2005년 한누리투자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2006년 한누리투자증권 전무이사
2008년 K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전무·본부장
2015년 KB투자증권 IB총괄
2016년 부사장, IB부문 총괄
2019년 KB증권 대표이사



이 홍 구 KB증권대표이사(WM부문)

1965년 9월 20일 출생
1990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2000년 현대증권 지점장
2011년 KB투자증권 HR팀장
2014년 양천·목동센터장
2015년 WM사업본부장
2017년 PB고객본부장, 상무
2019년 강남지역본부장
2020년 WM총괄본부장, 전무
2022년 WM영업총괄본부장·부사장
2024년 KB증권 대표이사



현대마린솔루션의 IPO 대표주관을 수행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유상증자에서도 업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6건의 IPO와 7건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켰다. 올해 1월 우진엔텍의 IPO를 시작으로, 제일엠에스, 민테크에 이어 5월 ‘최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의 국내 단독 대표주관을 수행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하반기 또한 ‘빅딜’로 주목받는 케이뱅크의 연내 상장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와이제이링크, 탑런토탈솔루션 등이 최근 코스닥 상장본부로부터 예비심사를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ISTE를 포함해 13개 종목이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MN C솔루션(방위산업부품 제조업) 및 발해인프라펀드 등의 상장을 통해 호실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ECM부문 1위를 재탈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금융 부문도 KB증권이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였던 SK쉐더스의 인수금융을 대표주관하며 업계 최정상의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인수금융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글로벌 대형 프라이빗 에쿼티(PE)인 EQT파트너스의 국내

최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해외 인수금융에서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2023년 해외 인수금융은 4건, 약 8000억원 규모의 주선을 시험했다. 본격적으로 해외 인수금융 주선 업무를 시작한 2021년 대비 약 6.6배 성장한 수치다.

또한, 인수합병(M&A) 분야는 최근 4년간 전문가 조직 구성과 다양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인수금융 주선 및 M&A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왔다. 그 결과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연속 국내증권사 중 M&A자문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M&A 비즈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국내 증권업 내의 경쟁을 뛰어넘어 글로벌 IB 및 회계법인에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톱3에 등극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WM 성장으로 실적 견인…고객 맞춤형 관리 ‘총력’

지난해 말 KB증권의 WM 대표로 선임된 이홍구 대표는 WM 부문 증가세를 실현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 대표가 맡은 WM부문의 올해 상반기 자산 규모는 5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51조원에 비해 급증했다. 6개월 만에 8조20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이 대표는 현대증권 출신으로 PB

고객본부장, 강남지역본부장, WM총괄본부장 등을 거친 뒤 2020년부터 KB증권의 WM 부문 부사장을 맡았다.

이홍구 대표, 자산관리 부문 강화 올해 상반기 자산규모 59조2000억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위해 조직개편

‘KBM-able’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AI 활용한 ‘Stock AI’ 서비스도 도입

지난해 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WM 중심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다. KB증권은 WM 고객에 대한 고차원 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솔루션 총괄본부’를 신설한 뒤 ▲WM 관련 고객 전략 ▲금융상품 ▲투자 서비스 조직을 통합 편제했다. 또한, 시장리스크부 내 고객자산리스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외 중장기 성장 전략과 연계한 주요 사업 추진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 이때 M&A, 인수금융 Biz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됐다.

KB증권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고객 중심 WM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증권사로서 선도적 포지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KB증권의 WM부문은 ‘고객관리·맞춤솔루션·채널연계’를 통한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를 목표로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고객 가치 중심 WM 기반의 확대 ▲고객 수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최적의 투자 솔루션 제공 ▲채널 운영의 고도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솔루션 제공 등이다.

이에 걸맞게 기존 점포를 새롭게 꾸며 주요 금융센터 등 거점 점포를 대형화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신흥부촌인반포 원베일리에 프리미엄 자산관리센터인 ‘KB GOLD&WISE the FIRST 반포’를 오픈했다. 프리미엄 자산관리센터는 지난 2022년에 압구정에 처음 오픈됐다. 이를 바탕으로 반포에 2호점, 연말에는 도곡에 3호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WM 성장세에 힘입어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채널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 초보투자자와 MZ세대를 위한 간편투자 플랫폼 ‘M-able mini(마블미니)’, 지난해 출시된 ‘M-able 와이드’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M-able 와이드’는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으로 맥북을 포함한 모든 PC, 태블릿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3월에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양방향 맞춤형 투자 정보 서비스인 ‘Stock AI’를 증권사 최초로 대고객 오픈하기도 했다. 마블미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양방향으로 증권에 특화된 AI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KB증권이 최초다.

KB증권 측은 “지난해 월간 이용자 수 및 브랜드 파워에서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최상위 투자 플랫폼 지위를 올해도 수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투자 플랫폼 라인업을 통해 고객 유형별 맞춤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상위권으로 재도전”… 작년 39개 의대 중도 탈락자 201명

종로학원, 대학알리미 분석 비수도권·수도권 각각 148·53명 2025년 의대 모집정원1500여명 ↑ “중도탈락 규모 내년 300명대 예상”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01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의 대로, 수도권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39개 의대 중도탈락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

대에서 각각 148명(73.6%), 53명(26.4%)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는 전년인 2022년도(179명)보다 12.3%(22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연도별 중도탈락자는 ▲2019년 185명 ▲2020년 173명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으로, 지난해 다시 200명대 이상 발생했다.

권역별로 의대 한 곳당 중도 탈락생을 살펴보면, 호남권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6.8명 ▲부산·울산·경남권 5.2명 ▲서울권 4.6명 ▲충청권 4.6명순이다. 대구·경북은 2.6명으로 전국 권역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교 당 평균

4.4명이 중도 탈락했고, 지방권 평균 중도탈락자는 5.5명이다.

학교별로 중도 탈락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충남대(16명)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 14명 ▲연세대(미래) 11명 ▲경상국립대 11명 ▲조선대 11명 ▲원광대 1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가 없는 의대는 을지대가 전국에서 유일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동국대(WISE), 건국대(글로벌)에서 각 1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영남대, 계명대, 인제대, 아주대, 가천대는 각 2명씩으로 학업을 관했다.

이는 비수도권 의대 학생이 다시 입시를 치러 수도권 의대로 진학한 것으

로 추정된다. 중도 탈락자는 자퇴뿐만 아니라 미등록·미복학·유급·학사경고 등도 포함하지만, 대부분 자퇴나 미등록에 해당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으로 의대에서 의대로 재도전하는 양상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4581명으로, 전년(3092명)보다 1500명가량 확대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돼 중도탈락 인원이 대량 나타나는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300명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ihj@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의대 입시 관련 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